

일본군‘위안부’ 기억 장소로서 초국적 지식장 : 영어권의 ‘위안부’ 연구를 중심으로*

김 은 경*

머리말: 왜 초국적 지식장에 주목하는가?

Ⅰ. 영어권 연구 현황

Ⅱ. 일본군 ‘위안부’ 피해 실태 연구

Ⅲ. 전쟁과 군사화의 맥락을 중시한 연구

Ⅳ. 전전/전후 성 착취 제도의 연속성에 주목한 연구

Ⅴ. 성노예론 비판 연구

Ⅵ. 일본군 ‘위안부’ 피해 부정 연구

맺음말

국문 초록

이 글에서는 관련 연구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의 기억 장소로서 초국적 지식장의 동향과 쟁점을 검토한다. 영어권에서 발표된 다양한 분과학문의 성과를 통해 식민 피해 그 자체로 표상되는 ‘위안부’ 인식을 벗어나서 새로운 논의의 지평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권의 ‘위안부’ 연구는 대부분 영어와 일본어 자료에 기초해 생산되고 있다. 한국계 연구자 외에 한국 자료와 연구 성과를 참고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이는 지식생산의 편향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 또는 동아시아의 지식이 일본을 경유해 영어권에 소개되고 그것이 인용을 통해 재생산되는 현실은 지식생산 구조의 불

* 본 연구는 한성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과제임.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세 분 심사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한성대학교 상상력교양대학 조교수. (eunkim1004@gmail.com)

균형을 초래한다. 이것은 ‘위안부’제도의 식민주의적 성격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약화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둘째, 소수 역사수정주의 출판물을 제외하면, 위안부 제도의 성격을 둘러싼 논의지형에서 ‘강제 vs. 자발’, ‘성노예 vs. 매춘부’의 구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거의 모든 연구는 유엔 보고서 등에 기초하여 성노예론을 정설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강제노동이나 강제매춘을 성노예와 대립적으로 보지 않는 연구도 적지 않다. 국제사회에서 이것들이 동일한 여성폭력의 맥락에서 이해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것은 역사수정주의의 부정론을 의식하며 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연구를 생산해왔던 기존 관행을 돌아보게 한다. 셋째, 영어권의 ‘위안부’ 연구에서 한국 가부장제의 문제를 문화적 차이로 환원하는 서술 태도가 적지 않게 눈에 띈다. 이것이 한국에서 제기될 때는 내적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는 데 반해, 영어권에서는 아시아적 특성이나 한국의 유교 전통으로 이해된다. 이런 본질주의적 접근은 오리엔탈리즘과 인종주의를 재생산하는 문제가 있다. 넷째, 초국적 지식장에서 일본군‘위안부’는 여성폭력이자 여성인권 문제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당연시되었던 패러다임을 의문시하고 재논의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일부 아시아계 여성주의 학자들은 서구 ‘제1세계’의 인권 담론이 ‘위안부’ 역사를 보편화하는 데 기여했지만, 다른 한편 그것이 ‘아시아’ ‘여성’의 타자화로 기능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요컨대, 초국적 지식장은 성노예론에 기초하되 여성인권, 전시성폭력, 강제매춘, 강제노동 등 보다 넓은 스펙트럼에서 ‘위안부’ 지식과 기억을 생산하고 있다. 또 세계 각지의 젠더·인종·계급 이슈와 결합해 위안부 역사가 복수(複數)의 기억으로 재탄생하고 있는 점도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겠다.

주제어: 일본군‘위안부’, 초국적 기억, 초국적 지식장, 성노예제도, 여성폭력, 여성인권

머리말: 왜 초국적 지식장에 주목하는가?

이제 국제사회에서 일본군‘위안부’(이하 따옴표 생략)는 글로벌 기억으로 공유되고 있다. 캐롤 글럭(Carol Gluck)은 홀로코스트 생존자와 마찬가지로 위안부 여성을 ‘글로벌 희생자’로 보았다. 위안부가 ‘상징권력’을 가진 ‘글로벌 희생자’로 보편화된 순간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나 아시아인의 손을 떠

났다고도 했다.¹⁾ 미국에서 위안부 연구를 이끈 마가렛 스테츠(Margaret D. Stetz)는 위안부 문학이나 홀로코스트 문학처럼 미국 대학에서 '위안부연구'("Comfort Women" Studies)'가 이루어질 날이 멀지 않았다고 그 가능성을 전망했다. 아울러 대학에서 초국적 텍스트로서 위안부를 가르쳐야 하는 이유와 필요성을 제기했다.²⁾

글럭과 스테츠의 주장은 위안부 피해의 역사가 국제사회의 인정체계 안으로 편입돼 글로벌 기억 장소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³⁾ 이런 현상은 지난 30년 간 피해자와 활동가가 힘겹게 벌인 인정투쟁의 결과로 크게 반길 만한 일이다. 하지만 위안부 역사가 '글로벌'이라는 상상적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다시 그 기억이 어떻게 배치되는지, 그런 기억정치가 발휘하는 효과가 무엇인지는 그 자체로 탐구대상이다. 강현이(Laura Hyun Yi Kang)는⁴⁾ 아시아계 미국인의 위치에서 위안부를 둘러싼 초국적(페미니즘) 연대의 이상을 날카롭게 심문했다. 여성 억압이나 젠더화된 피해의 "아시아화(Asianization)"가 학계와 초국가적 기구, NGO를 통해 공식화돼 유포되고 있다는 지적은 글로벌 기억 장소에 등장한 위안부 역사의 현실을 냉정하게

1) Carol Gluck, "What the World Owes the Comfort Women", in *Mnemonic Solidarity: Global Interventions*, eds., Jie-Hyun Lim, Eve Rosenhaft (London: Palgrave Mcmillan, 2021), p.94.

2) Margaret D. Stetz, "Representing 'Comfort Women': Activism through Law and Art", in *Transformations: Feminist Pathways to Global Change*, eds., Torry D. Dickinson, Robert K. Schaeffer (New York: Routledge, 2008), p.248; Margaret D. Stetz, "Teaching 'Comfort Women' Issues in Women's Studies Courses", *Radical Teacher*, no. 66, 2003.

3) 피에르 노라는 기억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은유적 공간을 '기억의 장소'로 개념화했다. 기억의 장소는 물질적·상징적·기능적 의미를 지닌다. 피에르 노라 외 지음, 김인중·유희수·문지영·양희영 옮김, 『기억의 장소 1: 공화국』, 나남, 2010, 55-57쪽.

4) 한국계 학자의 이름표기는 기존에 한국명으로 낸 출판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사용하고, 그 밖의 저자는 영문 논저의 표기에 따른다.

보여준다.⁵⁾ 이는 위안부 여성의 피해가 ‘보편 세계’인 글로벌 층위로 수렴될 때 소거되는 로컬리티와 재생되는 타자화의 문제를 고민하게 한다.

위안부 이슈가 글로벌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잔혹함의 척도인 홀로코스트에 견줘 경쟁적으로 위안부를 희생자화하려는 동아시아 각국의 태도다.⁶⁾ 2021년 3월 『아시아-태평양 저널: 재팬 포커스』는 “공적 역사로서 일본군위안부”를 주제로 특집호를 발간했는데 서문에 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담았다. 저자들은 동아시아에서 앞 다투어 홀로코스트를 민족 서사와 연관시키려는 희생자 경쟁은 병리학적 징후라고 비판했다. 위안부 피해가 홀로코스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경쟁 속에서 위안부 역사가 단순화되고 ‘다크 투어리즘’으로 상품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학계가 공적 역사로서 위안부의 복합적 특성을 놓치지 말아야 하며 초국적 지평에서 이를 맥락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자들에 따르면, 위안부를 공적 역사로 맥락화한다는 것은 가해자 공동체 대 피해자 공동체라는 이분법적 기억을 넘어 다방향적 기억(multidirectional memory)을 중시하는 것이다.⁷⁾

1990년대 이후 위안부 문제는 국제적이고 지역적인 층위에서 여러 요인

5) Laura Hyun Yi Kang, *Traffic in Asian Women* (Durham,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20), pp.41–50.

6) 임지현은 여러 차례 이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는 고통을 경쟁하며 희생자의식을 강화하는 지구적 차원의 기억 헤게모니 싸움을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임지현, 『희생자의식 민족주의: 고통을 경쟁하는 지구적 기억 전쟁』, 후마니타스, 2021, 23–50쪽; Jie-Hyun Lim, “The Second World War in global memory space”, in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Second World War Volume III, Total War: Economy, Society, and Culture*, eds., Michael Geyer, Adam Tooz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7) Mark R. Frost, Edward Vickers, “Introduction: The ‘Comfort Women’ as Public History: Scholarship, Advocacy and the Commemorative Impulse”,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vol. 19, iss. 5, no. 3, 2021.

에 의해 초국적 지식장에 등장했다. 한국의 민주화와 여성운동 활성화, 탈냉전과 동북아 정세 변화, 국제사회에서 여성 폭력에 대한 인식 발전 등은 그 배경으로 꼽힌다. 여기에 더해 미국 대학과 문화 산업에서 인구통계학적 변화(아시아계 미국인 증가)와 담론 변화(젠더와 인종 이슈 부상)가 일치했던 상황도 빼놓을 수 없다.⁸⁾

기술변화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지식장은 위안부 기억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중요한 행위자다. 각국의 역사학, 여성학, 문학, 정치학, 법학 등 분야의 학자들이 위안부 공론장에 참여하면서 논의지형이 변모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⁹⁾ 2021년 봄 마크 램지어(J. Mark Ramseyer)가 ‘태평양전쟁의 성 계약’ 논문을¹⁰⁾ 발표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학계가 느낀 당혹감은 내용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에 대한 정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다. 이것은 오늘날 한국의 위안부 연구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기존에 초국적 지식장에서 합의된 원칙과 공유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학자들의 발 빠른 비판이 나올 수 있었다는 점이다.

8) 강현이는 미국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의 위안부 이슈 제기는 인종주의, 제국주의, 계급편향에서 페미니즘을 구원하는 기능을 했으며, 미국 아카데미에서 주변화된 주체들에 의한 기억과 재현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Laura Hyun Yi Kang, *Traffic in Asian Women*, pp.1-14, pp.42-43.

9) 본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미국, 영국, 필리핀의 언론보도를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다. 정용욱 외, 『언론의 역사분쟁 보도와 동아시아 평화: 최근 미국과 일본 언론의 ‘위안부’ 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6; Chanhaeng Lee, “Can the Comfort Women Speak?: Mainstream US Media Representations of the Japanese Military Sex Slaves”, *Korea Journal*, vol. 61, no. 1, 2021; Woonok Yeom, “Going Selective? British Media’s Coverage of the Comfort Women”, *Korea Journal*, vol. 61, no. 1, 2021(민유기, 염운옥, 정용숙 외, 『전쟁과 여성 인권: 세계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인식』, 심산, 2021).

10) J. Mark Ramseyer, “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vol. 65, 2021.

위안부를 둘러싼 초국적 지식장의 지형도를 그려보는 일은 새로운 논의 지평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글로벌 지식장에 개입하는 것이 지식의 서구 종속성과 한국 학계의 주변성을 탈피하는 대안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다. 초국적(transnational)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글로벌-로컬’의 위계를 해체하고, 위안부가 한국과 일본의 내셔널리즘 의제로 제한되는 현실을 극복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¹¹⁾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어권에서 발표된 일본군위안부 연구동향과 쟁점을 검토한다. 여러 분과학문에서 다양한 국적의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지식장의 동향을 검토하는 작업은 그 자체로 초국적이고 학제적인 관점을 요구한다. 본 연구는 이런 접근방법에 따라 앞으로 위안부 연구가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과 범위가 넓어서 위안부 연구동향을 큰 틀에서 조망하되, 위안부제도의 성격과 관련된 논쟁을 중심으로 성과를 소개하겠다.

I. 영어권 연구 현황

1991년 위안부 생존자였던 고 김학순의 증언 이후 운동과 연구가 시작되었다. 먼저, 시기별 연구 현황을 살펴보겠다. 1992년 무렵부터 연구자들이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기고문을 각종 학술지에 게재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중후반 유엔인권위원회가 피해자를 조사해 수차례 보고서를 발표한 뒤 국제적인 관심과 중요성이 커졌다. 이즈음 발간된 한국, 필리핀, 네덜란드 위안부 생존자의 증언집도 관련 연구를 추동했다.

11) 글로벌 지식장을 둘러싼 사회학계의 논쟁은 다음을 참고. 김정만, 「우리는 왜 글로벌 지식장으로 가야 하나?: 『글로벌 지식장과 상징폭력』에 대한 정수복의 비판에 답하여」, 『경제와 사회』 제109호, 2016; 정수복, 「김정만의 ‘지적 도발’에 대한 정수복의 ‘응답’」, 『경제와 사회』 제108호, 2015.

위안부 연구는 1993년 앨리스 채(Alice Y. Chai)가 “아시아-태평양 페미니스트의 관점”에서 위안부 역사와 연대운동을 다룬 논문을¹²⁾ 시작으로 본격화되었다. 1995년에는 조지 히스(George Hicks)가 단행본을 출간해 주목을 받았다.¹³⁾ 1997년 최정무, 정진성, 양현아, 노마 필드(Norma Field) 등이 참여한 『포지션즈』의 일본군위안부 특집은 비판적 페미니스트의 관점을 제시했다.¹⁴⁾ 이런 초기 연구를 토대로 영어권 학계의 연구물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1990년대부터 2020년까지 영문으로 발표된 위안부 연구 통계는 <표 1>과 같다.¹⁵⁾

12) Alice Yun Chai, “Asian-Pacific Feminist Coalition Politics: The Chōngshindae/Jūgunianfu (‘Comfort Women’) Movement”, *Korean Studies*, vol. 17, 1993, pp.67-91.

13) George Hicks, *The Comfort Women: Sex Slaves of the Japanese Imperial Forces* (NSW: Allen & Unwin Pty Ltd, 1995); *The Comfort Women: Japan's Brutal Regime of Enforced Prostitution in the Second World War* (New York: W. W. Norton, 1995)(조지 히스 지음, 전경자·성은애 옮김, 『위안부: 일본군대의 성노예로 끌려간 여성들』(창작과비평사, 1995).

14) Chungmoo Choi, “Guest Editor's Introduction: The Comfort Women: Colonialism, War, and Sex”, *Positions: East Asian Cultural Critique*, vol. 5, no. 1, 1997; Chin Sung Chung,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Military Sexual Slavery Problem in Imperial Japan”; Hyunah Yang, “Revisiting the Issue of Korean ‘Military Comfort Women’: The Question of Truth and Positionality”; Norma Field, “War and Apology: Japan, Asia, the Fiftieth, and After”.

15) 이 연구의 대상은 영어권에서 발행한 위안부 연구지만, 통계에는 비영어권에서 발행한 영문 발간물까지 포함했다. 기고문, 서평, 언론 기사 등은 통계에 넣지 않았으나, 동아시아 정치와 사회·배상 관련 연구에서 위안부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한 것은 포함했다. 검색엔진은 Google Scholar, Scopus, Amazon, Proquest를 이용했으며, 검색 키워드는 ‘Comfort women’, ‘Japanese sexual slavery’ 등으로 했다. 주제 관련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나 검색엔진에 따라 통계결과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기초 자료조사는 백시진(팔레스타인평화연대) 선생님이 도와주었다. 백 선생님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표1〉 일본군‘위안부’ 영문 연구논저 통계표(1991~2020년)

	학술논문	학위논문	단행본	단행본 게재 논문	총계
1991~1995년	6	1	3	0	10
1996~2000년	34	2	7	3	46
2001~2005년	44	3	4	5	56
2006~2010년	45	9	5	12	71
2011~2015년	58	8	14	20	100
2016~2020년	111	3	34	26	174
총계	298	26	67	66	457

※ 총 457건 중 중복 4건(학술논문이나 학위논문을 단행본에 다시 게재한 경우 중복 계산)

1993년부터 영문으로 발표되기 시작한 위안부 연구는 1995년까지 10건에 불과하던 것이 점차 증가하여 2010년대 이후 급증했다. 최근 5~6년 사이에 국제적으로 위안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지난 30년 동안 나온 연구물의 형태별 통계를 보면, 학술논문 298건, 학위논문 26건, 단행본 67건, 단행본 게재 논문 66건으로 총457건(4건 중복)이다. 학술논문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2차대전기 과거사나 여성 폭력을 주제로 한 단행본에서 위안부 섹션이 꾸준히 증가했다.

주제별 연구 현황은 대체로 위안부 제도의 성격, 사죄와 배상, 운동, 재현과 집단기억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위안부 제도의 성격 연구는 초기에는 영어권에 그 실상을 알리고 각국의 피해 사례를 소개한 것이 많았다. 점차 논의가 축적되면서 전시 성폭력의 맥락을 중시한 연구, 전전과 전후 성 착취 시스템에 주목한 연구, 성노예론을 비판한 연구, 위안부 피해를 부정하는 연구 등이 생산되었다(Ⅱ장~Ⅵ장에서 상술). 역사수정주의 연구는 하타 이쿠히코(秦郁彦)의 영문 번역서나 일본 우익이 전략적으로 기획출판한 도서 외에 전문 학술연구는 램지어의 논문이 유일하다. 그밖에 위안부

제도의 폭력성과 일본정부의 책임을 부정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양적 비중이 큰 주제는 사죄와 배상 이슈를 다룬 역사학·정치학·법학 분야 연구다. 화해와 사죄에 대한 해법은 역사적·도덕적·정치적 접근법에 따라 다양하다. 원론적으로 사죄와 배상을 주장하는 견해부터 과거역사의 불의를 치유하기 위한 철학적 대안까지 여러 해법이 모색되고 있다. 또 지역안보라는 정치공학이 중시되기도 한다. 가해자이자 피해자라는 일본의 자기인식에 기초해 외교적, 정치경제적, 도덕적 사죄 담론을 분석한 노마 필드, 지역안보에 초점을 두고 사죄의 잠재적 위험성과 역효과에 주목한 제니퍼 린드(Jennifer Lind), 문화적 실용주의 모델에 따라 정치적 사과를 재개념화한 히로 사이토(Hiro Saito), 한미일의 역사와 동북아의 정치동학에 기초해 민족정체성 신화에 얽매인 사죄의 문제점을 지적한 알렉시스 더든(Alexis Dudden), 아시아여성기금이 보상 정치의 교착 속에서 “건설적인 타협책(constructive compromise)”이 되었다고 평가한 소정희(Chunghee Sarah Soh)의 연구 등이 있다.¹⁶⁾

위안부 행동주의 연구는 각 나라별 운동방식과 내셔널리즘, 그리고 초국적 여성연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90년 이후 위안부 운동사를 정리한 조지 히스, 국제사회 중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 역동성에 주목한 츠지에 저우(Chih-Chieh Chou), 위안부운동(CM)과 기지촌운동(KM)의 분리 과

16) Alexis Dudden, *Troubled Apologies: Among Japa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8); Chunghee Sarah Soh, “Japan’s National/Asian Women’s Fund for ‘Comfort Women’”, *Pacific Affairs*, vol. 76, no. 2, 2003; Hiro Saito, “The Cultural Pragmatics of Political Apology”, *Cultural Sociology*, vol. 10, no. 4, 2016; Jennifer Lind, *Sorry States: Apologies in International Politic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8); Norma Field, “War and Apology: Japan, Asia, the Fiftieth, and After”, *Positions: East Asian Cultural Critique*, vol. 5, no. 1, 1997.

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캐서린 문(Katharine H. S. Moon), 초국적 네트워크의 구성적 기반으로서 각국의 내셔널리즘적 실천에 주목한 마리아 알바레즈(María del Pilar Álvarez), 미국의 지역정치와 위안부 기념비 설립운동을 현실 정치적 관점에서 분석한 토마스 워드와 윌리엄 레이(Thomas J. Ward and William D. Lay) 등이 있다.¹⁷⁾ 또 피해 생존자의 사망이나 고령화로 운동 방향이 소송 중심에서 기념으로 이동함에 따라 그 유산을 어떻게 계승하고 추모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¹⁸⁾

최근에는 기억 연구의 활성화로 집단기억 연구가 재현 이슈와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재현 연구는 영화나 문학의 위안부 표상이나 기념비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룬다. 기념비의 재현과 상징성을 해석한 비키 권(Vicki

17) Chih-Chieh Chou, "An Emerging Transnational Movement in Women's Human Rights: Campaign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on 'Comfort Women' Issue in East Asia", *Journal of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vol. 4, no. 2, 2003; George Hicks, "The Comfort Women Redress Movement", in *When Sorry Isn't Enough: The Controversy over Apologies and Reparations for Human Injustice*, ed., Roy L. Brook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9); Katharine H. S. Moon, "South Korean Movements against Militarized Sexual Labor", in *Militarized Currents: Toward a Decolonized Future in Asia and the Pacific*, eds., Setsu Shigematsu, Keith L. Camacho (Minnesota: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0); María del Pilar Álvarez, "Nationalizing Transnationalism: A Comparative Study of the 'Comfort Women' Social Movement in China, Taiwan, and South Korea", *Journal of Contemporary Eastern Asia*, vol. 19, no. 1, 2020; Thomas J. Ward, William D. Lay, "The Comfort Women Controversy: Not Over Yet", *East Asia*, vol. 33, no. 4, 2016; *Park Statue Politics: World War II, Comfort Women Memorials in the United States* (Bristol: E-International Relations Publishing, 2019).

18) Mark R. Frost, Edward Vickers, "Introduction: The 'Comfort Women' as Public History: Scholarship, Advocacy and the Commemorative Impulse"; Heisoo Shin, "Voices of the 'Comfort Women': The Power Politics Surrounding the UNESCO Documentary Heritage",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vol. 19, iss. 5, no. 8, 2021.

Sung-yeon Kwon), 상징분석을 넘어 기념물의 물질성과 ‘이동하는 기억’에 주목한 데이비드 심(David Shim), 미국 내 기념비의 의미와 집단기억 형성을 분석한 린다 하수누마와 메리 매카시(Linda Hasunuma and Mary M. McCarthy) 등이 있다. 또 위안부역사의 초국적 기억 형성 과정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 캐롤 글럭, 동아시아 기억전쟁의 특정 맥락을 설명하며 역사와 문화를 아우르는 화해를 제안한 테사 모리스 스즈키 외(Tessa Morris-Suzuki et. al.) 등의 연구가 있다.¹⁹⁾

연구 방법론은 문헌분석, 구술과 재현 중심의 문화 분석, 국제정치적 비교, 국제법 해석과 판결 사례 분석 등이 가장 많이 눈에 띈다. 시각 면에서는 (한국이나 중국의) 민족주의가 두드러진 연구도 있으나 대체로 민족이나 국가의 경계를 넘는 초국적 관점을 중시한다. 그 가운데에서도 초국적 페미니즘은 각종 경계를 횡단하며 가장 왕성하게 연구를 생산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위안부 제도를 단일한 요인으로 설명하지 않고 젠더, 계급, 인종, 식민성 등이 결합된 문제로 보고 교차성을 중시한다. 또 위안부 제도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을 넘어 그것의 망각과 기억의 정치학을 날카롭게 심문한다.

19) Carol Gluck, “Operations of Memory: ‘Comfort Women’ and the World”, in *Ruptured Histories: War, Memory, and the Post-Cold War in Asia*, eds., Sheila Miyoshi Jager, Rana Mitter (Cambridge, Massachusetts,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Carol Gluck, “What the World Owes the Comfort Women”; David Shim, “Memorials’ politics: Exploring the material rhetoric of the Statue of Peace”, *Memory Studies*, June 22, 2021; Linda Hasunuma, Mary M. McCarthy, “Creating a Collective Memory of the Comfort Women in the USA”,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tics, Culture, and Society*, vol. 32, no. 2, 2019; Tessa Morris-Suzuki, Morris Low, Leonid Petrov and Timothy Y. Tsu, *East Asia Beyond the History Wars: Confronting the ghosts of violence* (London, New York: Routledge, 2013); Vicki Sung-yeon Kwon, “The Sonyosang Phenomenon: Nationalism and Feminism Surrounding the ‘Comfort Women’ Statue”, *Korean Studies*, vol. 43, 2019.

초국적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위안부 문제를 진영논리에 따라 판단하려는 태도와 선을 긋고 위안부 제도라는 거대한 폭력구조가 탄생한 복합적 배경을 탐색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가 비가시화 또는 과잉 가시화되는 맥락을 비판하고 있다.²⁰⁾

II. 일본군‘위안부’ 피해 실태 연구

위안부제도의 피해 실태에 주목한 연구의 비중은 그리 높지 않다. 제도의 실태를 밝히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 등에서 생산된 자료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언어 문제로 그에 접근할 수 있는 연구자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위안부 지식장에서 역사적 실증에 기초한 실태 연구가 그다지 유용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초적인 사실은 유엔 인권위원회 보고서와 각종 선행연구를 통해 규명되었으며, 그것의 폭력성과 반여성·반인권적 성격은 이미 공론장에서 합의된 지식에 가깝다.

피해 실태 연구로는 주로 초기에 나온 조지 히스, 데이비드 슈미츠(David Andrew Schmidt), 우스티나 돌고폴(Ustinia Dolgopol), 보니 오(Bonnie B. C. Oh), 민병갑, 안젤라 손(Angella Son) 등이 있다. 먼저 주

20) 최정무와 리사 요네야마는 동아시아 냉전체제의 작동에 따른 위안부 기억과 망각의 정치학에 주목했다. 최정무는 미국의 패권적 이해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폭력구조와 지식-권력을 탐문하는 일이 위안부 침묵의 역사에 다가갈 수 있는 통로임을 보여주었다. 이는 “냉전 정의의 트랜스 퍼시픽 배치”가 어떤 몸에 대한 누구의 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하며 그것을 다루고 해결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설정해 왔다고 지적한 요네야마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Chungmoo Choi, “Guest Editor’s Introduction: The Comfort Women: Colonialism, War, and Sex”, pp. v-vi; Lisa Yoneyama, *Cold War Ruins: Transpacific Critique of American Justice and Japanese War Crime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6), p.8.

목되는 것은 직접 피해 생존자를 조사해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한 조사관들의 연구다. 돌고돌은 일본정부와 군이 위안부제도의 설립과 위안부의 모집·이송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건임을 전제로 일본정부가 피해자를 위한 보상금(compensation)을 지급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개별 가해자를 형사 기소하는 것에는 회의적인 태도를 취했다. 현실적으로 범죄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연합국도 피해자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피해자 치유를 위한 건강센터와 기념관 건립에 힘을 쓸 것을 권고한 점이다. 연합국이 전후 위안부 피해사실을 알고도 책임자를 기소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여성들의 고통이 가중되었던 것에 책임을 물은 것이다.²¹⁾

히스는 전시 위안소는 언제나 있었지만 일본군위안부제도는 아시아 전역에서 어린 소녀에서 나이든 성매매 여성까지 광범위하게 강제력을 행사해 동원한 폭력이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위안부제도의 인종주의적 문제를 비판했다. 일본군이 조선인 여성을 선호했던 이유는 상대적으로 성병 보유자가 적고 피부색이 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²²⁾ 일본어 교수인 데이비드 슈미츠는 “20세기 잔혹행위 중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 중 하나”로 위안부 문제를 규정하며 일곱 개의 장에 걸쳐 위안부제도의 실상에 대해 서술했다.²³⁾

마가렛 스테츠와 보니 오(Margaret D. Stetz and Bonnie B. C. Oh)는

21) Ustinia Dolgopol, “Women’s voices, women’s pain”, *Human Rights Quarterly*, vol. 17, no. 1, 1995.

22) George Hicks, *The Comfort Women: Japan’s Brutal Regime of Enforced Prostitution in the Second World War*.

23) David Andrew Schmidt, *Ianfu - The Comfort Women of the Japanese Imperial Army of the Pacific War: Broken Silence* (New York: The Edwin Mellen Press, 2000).

1996년 미국 조지타운대학교에서 일본군위안부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그 성과를 단행본으로 출간했다. 그들은 아시아와 서구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군 성노예 피해자의 유산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²⁴⁾ 이 저서에서 보니 오는 사기, 노예 습격(slave raids), 가택 수색, 길거리 납치 등의 동원방식을 설명하며 동원의 강제성을 강조했다. 또 여성들이 오랫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조선의 유교와 순결의식, 그리고 전후 연합군의 묵인 등을 지적했다.²⁵⁾

민병갑과 안젤라 손은 피해 생존자의 구술을 통해 위안부 제도의 실상을 비판했다. 민병갑은 기존 구술 자료 외에 1995년부터 2001년까지 19명을 인터뷰해 식민주의, 젠더, 계급 등의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식민성이거나 젠더문제만을 강조하는 시각을 비판하고 교차적 관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²⁶⁾ 안젤라 손은 기존 구술 텍스트 분석을 통해 위안부 제도의 폭력성을 비판했다. 손은 이탤릭체를 사용해 “위안부 소녀-여성(*comfort girls-women*)”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소녀성’을 강조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가 발간한 『 역사를 만드는 이야기: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의 경험과 기억(증언집 6)』을 번역한 2020년 저서에도 같은 용어를 사용했다. 저자는 일반적인 ‘comfort’의 의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이탤릭체를 사용했다. 또 희생자들이 어린 나이였으며 그들이 오래 고통을 감내한 여성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소녀”와 “여성”을 병기했다고 밝

24) Margaret D. Stetz, Bonnie B. C. Oh, eds., *Legacies of the Comfort Women of World War II* (New York, London: M. E. Sharpe, 2001), pp. x iii - x iv.

25) Bonnie B. C. Oh, “The Japanese Imperial System and the Korean ‘Comfort Women’ of World War II”, in *Legacies of the Comfort Women of World War II*, eds., Margaret D. Stetz, Bonnie B. C. Oh (New York, London: M. E. Sharpe, 2001).

26) Pyong Gap Min, “Korean ‘Comfort Women’: The Intersection of Colonial Power, Gender, and Class”, *Gender&Society*, vol. 17 no. 6, 2003.

혔다.²⁷⁾

학술성고가 많지 않았던 시기의 연구들은 주로 초기 일본에서 나온 자료나 일부 연구서 등 제한된 자료를 활용했다. 히스와 슈미츠의 저서는 이런 면이 두드러진다. 이들은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의 저서뿐 아니라 센다가코(千田夏光)의 『중군위안부(從軍慰安婦)』(1973), 김일면의 『천황의 군대와 조선인 위안부(天皇の軍隊と朝鮮人慰安婦)』(1976) 등을 여러 곳에서 참고했다. 그나마도 일본어 연구논저와 사료 인용이 대부분이다.

조지 히스는 특히 김일면의 저서에 의존했다. 주지하듯, 김일면은 위안부 연구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산재한 자료들을 찾아 저술하면서 참전군인 회고록의 시각을 무비판적으로 적용했는데, 히스 역시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 그런 히스의 저서를 참고해 재생산한 연구가 적지 않다는 사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이와 관련해서는 캐서린 문의 비평이 가장 눈에 띈다. 캐서린 문은 히스가 아시아 전역의 위안소를 소개해 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주었지만, 각 지역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분별없이 서술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버마가 영국 지배에 저항했던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버마 여성들이 위안부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한 것을 그 예로 제시했다. 또 젠더, 전쟁, 식민주의와 관련된 연구문헌을 검토하지 않고 ‘남성의 전쟁’과 ‘희생자로서 여성’을 단순히 대비한 것을 비판했다.²⁸⁾

27) Angella Son, “Inadequate Innocence of Korean *Comfort Girls*—Women: Obliterated Dignity and Shamed Self”, *Pastoral Psychology*, vol. 67, no. 2, 2018, pp.175–176; The Research Team of the War and Women’s Human Rights Center, ed., *Stories that Make History: The Experience and Memories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Girls—Women*, trans., Angella Son (Berlin, Boston: Walter De Gruyter GmbH & Co KG., 2020).

28) Katharine H. S. Moon, “Book Review: *The Comfort Women: Japan’s Brutal Regime of Enforced Prostitution in the Second World War*”,

히스가 정확한 출처를 제시하지 않고 에세이처럼 서술한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들이 적지 않다. 첫째, 히스는 2장 제목으로 사용한 “인육시장(The flesh market)”처럼 피해를 자극적으로 재현하는 용어와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했다. 김일면의 글을 참고해 “일본 여자들은 직업매춘부들이었으므로 성적 흥분을 위장하는 일에 능란했으며, 이는 고객으로부터 급속한 반응을 불러일으켜 - 매춘부의 진짜 목적인 - 성적 관계에 신속한 종결을 지었다 … 반면에 한국 여자들은 연속적인 접대로 욕신이 지치기 전까지는 일본인 여자들보다는 훨씬 더 꾸밈없는 반응을 보였다”며 피해를 전시하며 관음증적 시선을 내비쳤다.²⁹⁾ 심지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출간된 판본은 1938년 중국 안휘성(安徽省) Ningkuo(宁国) 위안소(Ningkuo comfort station)에서 촬영된 속옷만 입은 위안부 여성의 전신 사진을 이미지로 사용했다.³⁰⁾ 이는 아시아 여성의 몸을 에로틱하게 전시하려는 출판사의 판매 전략일 수도 있겠으나 저자의 관점이 이와 얼마나 다른지 의문이다. 둘째, 히스는 제1장 “마르스와 비너스(Mars and Venus)”에서 신화를 소환하여 군인과 성 착취 관계를 낭만화하고 이것을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일로 본질화했다. 군인 출신이라면 “정상적인 사회적·감정적 배출구를 박탈당한 채 남자들만으로 구성된 공동체에서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듯이 섹스에 집착한 사실을 누구나 기억할 것”이라며 남성의 이성애적 성욕

Contemporary Sociology, vol. 25, iss. 5, 1996, pp.630-631.

29) George Hicks, *The Comfort Women: Japan's Brutal Regime of Enforced Prostitution in the Second World War*, p.66; 인용은 한글 번역서를 참고, 조지 히스 지음, 전경자·성은애 옮김, 『위안부: 일본군대의 성노예로 끌려간 여성들』, 77-78쪽.

30) George Hicks, *The Comfort Women: Sex Slaves of the Japanese Imperial Forces* (https://www.amazon.com/Comfort-Women-Slaves-Japanese-Imperial/dp/0285632590/ref=sr_1_6?dchild=1&keywords=George+Hicks&qid=1632068985&s=books&sr=1-6, 검색일: 2021년 9월 1일).

을 전제하는 서술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겠다. 셋째, 아시아 여성이나 한국과 일본을 보는 오리엔탈리즘적 시선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는 위안부 문제가 공론화되기 전의 상황을 거론하며 “아시아 여성들은 이제까지 천년왕국을 기다리며 그들의 운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른다”고 서술했다.³¹⁾ 또 “서구의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어떤 나라도 제일 한국인 집단의 경우와 같이 종족간의 차별을 법률로 정해서 실시하는 경우는 없다”며 일본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을 드러냈다.³²⁾

문헌분석과 구술 텍스트 분석을 통한 위안부 실태 연구들은 모두 여성을 강제로 동원해 성노예로 만든 위안부제도의 폭력성을 비판했다. 예외적으로 안젤라 손은 소녀를 강조하는 “위안부 소녀-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대개 ‘소녀’를 별도로 표기한 연구들은 당시 국제법상 미성년 여성의 인신매매가 불법이었다는 점을 부각한다. 이런 시각에서 마가렛 스테츠는 위안부 동상의 소녀 이미지가 어린 소녀의 희생과 조직적인 여아 인신매매에 기초해 위안부제도가 운영되었다는 사실을 서구사회에 전한다고 했다.³³⁾ 이와 달리, 손의 글에서 ‘소녀’는 본문에 자주 등장하는 ‘결백(innocence)’, ‘치욕(shame)’, ‘존엄(dignity)’ 등 어휘에 조응한다. “한국인 위안부 소녀-여성들의 경험은 군대 성폭력이 얼마나 여성의 존엄을 말살하고 치욕적이

31) George Hicks, *The Comfort Women: Japan's Brutal Regime of Enforced Prostitution in the Second World War*, p.274; 인용은 한글 번역서를 참고, 조지 히스 지음, 전경자·성은애 옮김, 『위안부: 일본군대의 성노예로 끌려간 여성들』, 324쪽.

32) Ibid., p.275; 인용은 위의 책 참고, 325쪽.

33) Margaret D. Stetz, “Making Girl Victims Visible: A Survey of Representations That Have Circulated in the West”, in *The Transnational Redress Movement for the Victim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eds., Pyong Gap Min, Thomas R. Chung and Sejung Sage Yim (Berlin, Boston: Walter De Gruyter GmbH & Co KG., 2020).

게 만드는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는 서술은 소녀가 어떤 문맥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짐작하게 한다.³⁴⁾ 성폭력 피해를 치욕으로 보는 것은 매우 가부장제적인 이해방식이다. 이는 위안부 연구와 운동 프레임이 ‘명예와 존엄’에서 ‘여성인권’으로 바뀐 의미를 간과한 것으로 그동안 축적된 연구 성과에 역행하는 것이다.³⁵⁾

III. 전쟁과 군사화의 맥락을 중시한 연구

1990년대 구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는 전시 성폭력으로 규정했다. 이에 국제법상 범죄인 전시 성폭력 개념에 유의하여 전쟁과 군사화의 맥락을 중시하는 위안부 연구가 등장하게 되었다. 주요 논자들의 견해와 논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키 타나카(Yuki Tanaka)의 저서는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영어권에서는 인용 횟수가 많은 유명한 연구서다. 타나카는 군국주의, 가부장주의, 인종주의, 식민주의가 일본군위안부제도를 가능하게 했다고 보고 그 역사적 과정을 추적했다. 방대한 문서를 기초로 제도의 설립·운영에 일본 육해군과 외교부처의 협력 관계가 있었음을 밝히는 한편, 식민지배와 성 착취의 관련성에 주목했다.³⁶⁾ 전쟁말기 연합군이 공모해 위안부의 존재를 은

34) Angella Son, “Inadequate Innocence of Korean Comfort Girls–Women: Obliterated Dignity and Shamed Self”, p.175.

35) Carol Gluck, “Operations of Memory: “Comfort Women” and the World”, p.75; Margaret D. Stetz, “Wartime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A Feminist Response”, in *Legacies of the Comfort Women of World War II*, eds., Margaret D. Stetz, Bonnie B. C. Oh (New York, London: M. E. Sharpe, 2001), pp.94–95.

36) Yuki Tanaka, *Japan's Comfort Women: Sexual slavery and prostitution*

폐했던 것을 비판하고, 더 나아가 미군과 오스트레일리아 군 보고서를 통해 이들이 주둔지역에서 군 위안소(military brothel)를 직접 관리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아울러 전후 일본정부와 미 점령 당국의 협력관계가 일본의 성매매 제도 확장에 기여했다고 비판했다. 저자는 전전 일본의 가라유키상(からゆきさん: 19세기 해외로 인신매매된 여성)과 공창제가 위안부제도의 기원이라고 보면서도, 그것을 일본 예외주의로 보지 않고 전쟁과 군사화의 문제로 보았다.

테사 모리스 스즈키는 각국의 자료를 통해 일본군위안부나 위안소를 목격한 연합군의 기록을 분석했다. 또 일본군위안부제도와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연합군의 사설 위안소 이용을 거론하며 연합군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³⁷⁾ 이런 고찰을 통해 “역사적 기록은 전쟁이 여성에 대한 온갖 형태의 성폭력의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전쟁을 폐지하는 것은 세계적인 수준에서 성폭력을 줄이는 훌륭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³⁸⁾ 하지만 일본군위안부제도를 모든 전쟁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보는 시각과는 거리를 두었다. 미군이나 중국 공산당의 사례와 비교해 위안부제도의 폭력적 특징을 강조하며 그런 일반화를 경계했다.³⁹⁾

안연선(Yonson Ahn)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전시 (성)폭력 문제를 고찰했다. 안연선은 역사적으로 몸과 섹슈얼리티는 국가와 군대 권력의 투쟁의

during World War II and the US occupation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2).

37) Tessa Morris-Suzuki, “You Don’t Want to Know About the Girls? The ‘Comfort women,’ the Japanese Military and Allied Forces in the Asia-Pacific War”,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vol. 13, iss. 31, no. 1, 2015.

38) Ibid., p.15.

39) Ibid., p.16.

장소로 기능해 왔다고 보았다. 특히 위안부제도의 맥락에서 몸과 섹슈얼리티는 인종·젠더 위계와 식민지에 대한 지배력 형성에 이용되었다고 주장했다. 전시 차별적으로 배치된 여성성과 남성성을 탐색한 점은 다른 연구와 대비되는 특징이다.⁴⁰⁾

위안부제도를 전시 강간 또는 전시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것을 비판하는 견해도 있다. 캐롤라인 노마(Caroline Norma)는 군사적 환원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군사적 환원주의는 전시 성폭력이 전장의 가혹한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결과라는 시각을 전제한다는 것이다. 노마는 전시 성폭력 패러다임이 평시 여성에 대한 구조적 폭력을 간과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그녀가 이를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는 전시 상황을 강조하는 프레임이 수많은 일본인 위안부와 성매매 여성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⁴¹⁾

노마는 정대협이 위안부 기념관을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으로 이름 지은 것을 거론하며 이는 위안부 문제를 지나치게 일반화하고 광범위하게 재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마에 따르면, 전시 군 점령지 성매매를 인권 침해로 보지 않는 영어권 문헌이 수없이 많다고 한다. 전시 여성의 성매매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저서조차 “강제된” 형태와 “자유로운” 형태를 구별하고 “강제 매춘”만을 “전쟁 수단”으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노마는 전시 성매매를 문제 삼으면서도 정작 그보다 더 파급력이 큰 평시 성매매를 폭력으로 인식하지 않는 태도를 비판했다.⁴²⁾ 세이야 모리타(Seiya Morita) 역시 캐롤

40) Yonson Ahn, *Whose Comfort?: Body, Sexuality And Identities Of Korean 'Comfort Women' and Japanese Soldiers During World War II* (New Jersey, London, Singapore: World Scientific Publishing, 2019).

41) Caroline Norma, *The Japanese Comfort Women and Sexual Slavery During the China and Pacific Wars* (London, New York: Bloomsbury Publishing, 2016)(캐롤라인 노마 지음, 유혜담 옮김, 『위안부'는 여자다: 여성주의 관점으로 '위안부' 역사를 복원하다』, 열다북스, 2020, 350-355쪽).

42) Caroline Norma, “The First #METOO Activists: Contemporary

라인 노마가 번역한 최근 글에서 전시 성폭력 패러다임은 폭력이 왜 성적인 형태로 나타나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를 평시 성폭력 구조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⁴³⁾

이는 여러모로 중요한 논쟁거리를 함축하고 있다. 하지만 노마와 모리타 역시 위안부제도의 폭력성을 단일한 요인으로 환원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전시 성폭력이나 전시 강간 패러다임을 옹호하는 학자들이 모두 전쟁을 유일한 폭력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니콜라 헨리(Nicola Henry)는 전시 강간에 주목하면서도 교차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시 강간 교차모델은 젠더·인종·민족·나이·사회경제적 상태로 인해 표적이 된 전시 성폭력 희생자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경험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했다. 전시 성폭력은 전전과 전후의 일상적 형태의 폭력과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⁴⁴⁾

전시 강간 패러다임의 문제와 관련하여 고민해 볼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위안부제도의 복합적 특성에 주목한 박정애는 전시 강간 개념이 제도로서 위안부의 역사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일본군이 점령지 여성을 납치해 강간하는 사례가 빈번했고 실제로 묵인했지만 이는 원칙적으로 금지사항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박정애는 중일전쟁 발발 후 일본군이 공창제 시스템을 동원해 군의 '위안처'로 활용했기 때문에 전시 재편된 공창제는 결국 위안소제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역사적 사실에 기

Campaigning in Support of the Former Military 'Comfort Women', *Cross Currents*, vol. 69, no. 4, 2019, pp.441-447.

43) Seiya Morita, Caroline Norma, "Sexual Violence in Wartime and Peacetime: Violence Against Women in the 20st Century",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vol. 19, iss. 5, no. 9, 2021.

44) Nicola Henry, "Theorizing Wartime Rape: Deconstructing Gender, Sexuality, and Violence", *Gender & Society*, vol. 30, no.1, 2016, pp.51-52.

초해 위안부제도의 성격과 개념을 재정립할 것을 제안했다.⁴⁵⁾ 전쟁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면서도 공창제라는 성 착취 제도의 변동을 고려한 이 연구는 전시 성폭력 패러다임 논쟁에 시사하는 점이 많다.

IV. 전전/전후 성 착취 제도의 연속성에 주목한 연구

위안부제도의 배경으로 공창제나 인신매매 등 성 착취 구조에 주목한 연구가 있다. 초기 연구로 앨리스 채, 카즈코 와타나베(Kazuko Watanabe), 존 리(John Lie) 등이 있다. 앨리스 채는 위안부제도의 설립에서 일본군의 결정적인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가라유키상(からゆきさん: 19세기 해외로 인신매매된 여성), 위안부, 자파유키상(ジャパゆきさん: 1980년대 아시아 각국에서 일본으로 유입된 여성)은 군국주의, 가부장제, 국가관리 성 산업이라는 면에서 역사적 연속성과 구조적 유사성이 있다고 했다. 각기 다른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일상과 노동조건(working conditions)이 비슷했다는 것이다.⁴⁶⁾ 와타나베 역시 전시와 평시를 아우르며 여성의 몸을 폭력적 상황으로 몰아넣었던 인신매매제도와 군 성노예제를 비판했다.⁴⁷⁾ 존 리는 근대 초 일본 성산업의 발흥, 일본군위안부제도 설립, 전후 미군 위안시설과 성산업 등의 과정을 같은 맥락에서 서술하고 “포주로서 일

45) Jung-ae Park, “The Concept and the Category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Through Looking at Their Damage Condition”, *The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vol. 17, no. 2, 2021, pp.86–91.

46) Alice Y. Chai, “Asian-Pacific Feminist Coalition Politics: The Chōngshindae/Jūgunianfu (‘Comfort Women’) Movement”.

47) Kazuko Watanabe, “Trafficking in Women’s Bodies, Then and Now: The Issue of Military ‘Comfort Women’”, *Peace & Change*, vol. 20, no. 4, 1995.

본 국가는 현대 가부장제 국가의 극단적인 행태”라고 했다.⁴⁸⁾

캐롤라인 노마는 전전-전시-전후의 연속적인 성 착취 시스템 속에서 일본군위안부제도의 성격을 분석했다. 근절주의 관점에서 위안부 문제를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노마는 그동안 위안부 생존자 정의운동에서 페미니스트들이 성 착취 문제를 직시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일본군위안부제도가 민간 성 착취 산업의 여러 면을 판박이처럼 모방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민간 성산업과의 관련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위안부제도가 전시에 독자적으로 개발된 특수 사례라는 시각에 반기를 들었다. 이런 맥락에서 피해자로서 자격이 있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을 가르는 연구 시각과 운동 관행을 맹렬히 비판했다.⁴⁹⁾ 세이야 모리타 역시 위안부 제도가 평시와 분리된 전쟁 범죄가 아니라 평시와 연결된 제도화된 여성폭력이라고 주장했다. 또 성 노동을 옹호하는 자유주의 이론가들이 일본인 위안부를 개인의 의지로 선택한 성 노동자로 보는 것은 역사수정주의의 논리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⁵⁰⁾

강현이는 90년대 이후 국제적인 이슈로 부상한 위안부를 통해 ‘아시아 여성’이 구성되어온 방식을 분석했다. ‘아시아 여성’을 방법론으로 제시하며 위안부를 어떤 고정된 과거사건 속에 배치하고 정체화하는 것을 넘어 비판적으로 재사유할 것을 제안했다. 국제사회에서 여성인신매매와 성노예, 여성폭력에 대한 논쟁의 변화, 보상과 기념 문제까지 폭넓게 아우른 그녀의 저서는 위안부 연구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저자는 여성

48) John Lie, “The State as Pimp: Prostitution and the Patriarchal State in Japan in the 1940s”, *The Sociological Quarterly*, vol. 38, no. 2, 1997.

49) 캐롤라인 노마 지음, 유혜담 옮김, 『위안부’는 여자다: 여성주의 관점으로 ‘위안부’ 역사를 복원하다』, 37-51쪽.

50) Seiya Morita, Caroline Norma, “Sexual Violence in Wartime and Peacetime: Violence Against Women in the 20st Century”.

이주, 노동, 섹슈얼리티에 대한 국내외적 감시체제의 정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위안부제도는 여성인신매매의 강력한 사례라고 했다. 그리고 인신매매와 강제매춘이 성노예와 함께 노예의 범주에서 인식될 수 있었던 국제사회의 논의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 또 일본군위안부가 성노예제로서 전쟁범죄이자 인도에 반하는 죄로서 국제적 인정체계 내로 수용되는 과정을 면밀히 검토했다.⁵¹⁾

위안부제도를 성매매 시스템과 연계해 보는 시각은 위안부 피해를 부정하는 역사수정주의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다. 이들은 피해를 부정하거나 축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피해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기본적으로 위안부나 공창제 모두 여성을 성노예로 만드는 국가 관리 성 착취 시스템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노마처럼 일본인 위안부에 초점을 둔 주장 역시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위안부 역사를 단순화한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⁵²⁾

흥미로운 사실은 위안부제도와 공창제를 직접 연결하지 않더라도, 많은 연구논저에서 위안부(comfort women)와 함께 군 매춘/군 매춘부(military prostitution/prostitutes), 강제매춘(forced prostitution) 등을 한 논문에서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엘리스 채는 위안부제도를 “일본군 성노예제(Japanese military sex slavery)”로 규정하면서도, 초기 동원과정에 대한 서술에서 조선인 여성을 “군 성노동자(military sex workers)”로 모집했다고 했다.⁵³⁾ 이와 유사한 표기는 다른 글에서도 자주

51) Laura Hyun Yi Kang, *Traffic in Asian Women*, pp.51-151.

52) 이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는 다음 글을 참고. Mark R. Frost, Edward Vickers, “Introduction: The “Comfort Women” as Public History: Scholarship, Advocacy and the Commemorative Impulse”.

53) Alice Y. Chai, “Asian-Pacific Feminist Coalition Politics: The Chōngshindae/Jūgunianfu (‘Comfort Women’) Movement”, p.67, p.69.

발견된다.

용어의 혼용은 국제사회의 논의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⁵⁴⁾ 1998년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게이 맥두걸(Gay J. McDougall)은 〈전시하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와 그와 유사한 관행〉에 관한 최종보고서에서 1926년 노예협약에 준해 성노예의 개념을 설명한 뒤 “성노예는 또한 모든 형태는 아닐지라도 거의 대부분의 강제매춘(forced prostitution)을 포함한다”고 서술했다.⁵⁵⁾ 카르멘 아르기바이는 강제노동, 강제매춘, 성노예 등의 개념 차이를 언급하면서도 이것들은 모두 국제법 위반으로 맥락상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다만,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에서 피해 생존자들이 ‘매춘부’라는 오명을 쓴 것이 그들의 고통을 더 심화시켰다는 점을 거론하며 사려 깊은 설명을 덧붙였다. 강제매춘은 본질적으로 성노예와 다르지 않지만 같은 수준의 의미를 전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즉 강제매춘은 여성을 강간하는 남성의 관점을 반영하지만 성노예는 피해 여성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것이다.⁵⁶⁾ 이것은 ‘성노예냐 매춘부냐’와 같은 이분법을 넘어설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54) 성노예의 개념 형성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Kelly D. Askin, “Comfort women – Shifting shame and stigma from victims to victimizers”, *International Criminal Law Review*, vol. 1, 2001, pp.7–13.

55) Gay J. McDougall,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 Systematic Rape, Sexual Slavery and Slavery-Like Practices during Armed Conflict* (E/CN.4/Sub.2/1998/13)(New York: United Nations, 1998), pp.12–13.

56) Carmen M. Argibay, “Sexual Slavery and the ‘Comfort Women’ of World War II”, *Berkele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1, 2003, pp.386–387.

V. 성노예론 비판 연구

1996년에 제출된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쿠마라스와미(Radhika Coomaraswamy)의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일본군위안부제도를 성노예제로 규정하게 된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다. 쿠마라스와미는 일본군위안부는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의 명백한 사례라고 했다. 위안부는 피해자의 고통을 반영하지 못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를 “군 성노예(military sexual slaves)”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⁵⁷⁾ 1998년 게이 맥두걸 보고서도 동일한 의견을 제시했다. 학계의 논의는 대체로 유엔 보고서의 권위를 승인하며 그에 기초해 이루어져 왔다.

성노예론을 다른 각도에서 보려는 시도가 없지는 않다. 그 가운데 엘리사 리(Elisa Lee)와 소정희의 연구가 주목된다. 엘리사 리가 인권담론의 서구 중심성과 이성애 규범성(heteronormativity)을 비판하며 그에 기초한 성노예론에 의문을 제기했다면, 소정희는 여성의 행위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성노예론을 비판했다.

엘리사 리는 유색 여성 페미니즘 비평, 유색 퀴어 비평, 아시안 아메리칸 연구의 방법론과 시각에서 보편적인 인권 프레임에 의한 성노예론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초점은 성노예론 비판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 위안부 담론에 대한 퀴어 비평적 독해에 있다. 엘리사 리는 위안부 이슈가 ‘민족적 수치’에서 ‘여성인권의 국제적인 상징’으로 변화하게 된 역사적 과정을 탐색하여 인권담론에 기초한 성노예론이 결국 이성애 규범성과 서구 제국주의 논리를

57) Radhika Coomaraswamy, Report on the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on the Issue of Military Sexual Slavery in Wartime (E/CN.4/1996/53/Add.1)(New York: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1996), pp.4-5.

반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소정희와 후지메 유키(藤目ゆき) 등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일본 공창제 폐지론에 나타나는 페미니즘 인도주의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폐창론이 이성애 규범성에 기초해 성적 순결성을 강조하는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엔이나 미국의 인권 레토릭과 성노예론 역시 동일한 문제를 은폐하고 있다고 보았다.⁵⁸⁾ 국제사회에서 여성 참정권보다 인신매매가 최초의 여성인권 의제가 되었던 배경에 인종주의, 제국주의, (혈통의 순수성에 기초한) 국가주의가 있었다는 점을 참고해 보면⁵⁹⁾ 엘리사 리의 문제제기가 타당한 면이 있다. 현대정치철학에서 논쟁의 도마 위에 오른 인권담론을 위안부 이슈와 연계해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⁶⁰⁾ 그렇지만 ‘여성의 권리가 곧 인권’이라는 슬로건과 위안부 성노예론은 다양한 주체들이 개입해 오랜 논의를 거쳐 1990년대 이후에 공인되었다. 엘리사 리가 현대 노예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의를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소정희는 영어권에서 위안부 연구를 가장 많이 발표한 학자다. 관련 연구에서 그녀의 저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을 찾기 힘들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⁶¹⁾

58) Elisa Lee, “Behind the Mask of Human Rights: ‘Comfort Women,’ Heteronormativity, & Empires”, *Tapestries: Interwoven voices of local and global identities*, vol. 4, no. 1, 2015.

59) Stephanie A. Limoncelli, *The Politics of Trafficking The First International Movement to Combat the Sexual Exploitation of Women*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0), pp.1-3.

60) 미국언론에 나타난 인권담론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찬행의 연구를 참고. Chanhaeng Lee, “Can the Comfort Women Speak?: Mainstream US Media Representations of the Japanese Military Sex Slaves”, pp.30-32.

61) Chunghee Sarah Soh, *The Comfort Women: Sexual Violence and Postcolonial Memory in Korea and Japan* (Chicago,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

한국에서 일부 논문이 번역되기도 했으나⁶²⁾ 여러 논쟁거리를 담고 있는 이슈가 충분히 소개되지는 않았다. 2008년에 출간한 저서는 비판인류학적 방법론에 기초하여 ‘강제로 납치돼 일본군의 성노예가 된 어린 소녀’라는 전형적인 위안부 서사를 반박하는 데 주력했다. 이런 ‘판에 박힌 이야기’를 거부하며 동원과정에서 아버지로 대표되는 조선의 가부장제와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여성의 주체적 선택을 강조했다. 또 일부 위안소는 고급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먹거리와 돈이 풍족한 사례도 있다며 여성들이 모두 노예적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했다. 또한 오늘날 관행적인 표현인 ‘매춘부’ 대신 ‘성노예’로 부르는 것은 ‘위안부는 일본군을 따른 매춘부였을 뿐’이라는 일본 신민족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한 대응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강제동원론과 성노예론은 일부 위안부 여성들이 상업적 성산업에 있었던 현실을 무시하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여성을 무력한 희생자로 만들고 인간 행위성(human agency)을 부정한다고 비판했다.⁶³⁾

성노예론 비판은 위안부 서사의 전형성에 대한 비판과 맥을 같이 한다. 소정희는 그동안 위안부 활동가와 연구자들이 강제동원과 성노예 프레임에 맞춰 생존자 구술을 전형적인 이야기로 만든 결과, 그것에서 벗어난 경험을 가진 서발턴의 목소리를 들리지 않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형적인 이야기’와 다른 구술을 적극 소개하고 일부 생존자의 구술 변화에 주목했다. 생존자 이용수가 처음에는 친구와 집에서 몰래 빠져나와 모집업자에게

62) 소정희, 「교육받고 자립된 자아실현을 열망했건만: 조선인 ‘위안부’와 정신대에 관한 ‘개인 중심’의 비판인류학적 고찰」,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1』, 책세상, 2006.

63) Chunghee Sarah Soh, “Prostitute versus Sex Slaves: The Politics of Representing the ‘Comfort Women’”, in *Legacies of the Comfort Women of World War II*, eds., Margaret D. Stetz, Bonnie B. C. Oh (New York, London: M. E. Sharpe, 2001), p.81; Chunghee Sarah Soh, *The Comfort Women: Sexual Violence and Postcolonial Memory in Korea and Japan*, pp.33-34.

“빨간 원피스와 가죽 구두”를 받고 선뜻 그를 따라 나섰으나 후에는 일본군에게 강제로 납치되었다고 말을 바꿨다며 이에 대해 상세히 서술했다.⁶⁴⁾ 또 위안부 구술에 나타난 전후 트라우마와 일본군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추가하여 개별 여성이 체험한 사적 경험을 통해 거대서사를 해체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⁶⁵⁾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의 논리와 매우 흡사한 소정희의 저서는 한국의 보수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제 문화를 설명하는 글에서 많이 인용된다. 일본 우익에게는 생존자 구술의 신뢰성을 의문시하는 근거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⁶⁶⁾ 저자 자신이 일본정부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거나, 자신의 학문적 주장을 악용하지 말라며 일본우익에게 경고하는 것만으로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물론 긍정적인 평가도 존재한다. “여성의 몸을 먹잇감으로 하는 제국주의와 폭력에 대한 세심한 이해를 보여준다”는 칭찬과⁶⁷⁾ 일부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뢰밭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용기 있고 야심찬 작업”이라는 평가가 그것이다.⁶⁸⁾ 이와 달리 문승숙은 소정희의 모호한 입장을 비판했다. 소정희

64) Chunghee Sarah Soh, *The Comfort Women: Sexual Violence and Postcolonial Memory in Korea and Japan*, pp.99-101.

65) Ibid., pp.181-190.

66) 2015년 이용수 생존자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의회에 방문해 증언할 때 고이치 메라(‘역사적 진실을 요구하는 세계연합회’ 미국 의장)는 소정희의 저서를 들어 보이며 그녀의 설명이 초기 증언과 다르다고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서는 미키 테자키 감독의 영화 <주전장>(2019) 참고.

67) Mire Koikari, “(Book Reviews) *The Comfort Women: Sexual Violence and Postcolonial Memory in Korea and Japan*, by C. Sarah Soh.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 *Korean Studies*, vol. 34, 2010, p.148.

68) Sealing Cheng, “(Book Review) *The Comfort Women: Sexual Violence and Postcolonial Memory in Korea and Japan*. By C. Sarah Soh.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9”,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68, iss. 4, 2009, pp.1321-1322.

가 가부장제라는 구조적 폭력과 ‘공적 섹스’ 제도에 초점을 두어 결과적으로 일본군의 책임을 약화시켰다는 것이다.⁶⁹⁾

강현이와 캐롤라인 노마의 비판은 더욱 신랄하다. 강현이는 소정희의 방법론과 인식론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⁷⁰⁾ 특히 노마는 소정희가 전복하려는 ‘판에 박힌 이야기’는 일본군이 여성의 성을 착취했다는 사실인데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소정희가 일본군이 “위안부를 같은 인간으로 여기며 섹스를 통해 개인적 존엄을 지켰던 것 같다”고 서술한 부분을 거론하며 위안소의 성 착취에 인도주의적 이유를 갖다 붙였다고 혹독하게 비판했다.⁷¹⁾

이처럼 여러 학자들의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몇 가지 빠진 부분이 있다. 먼저, 행위성에 대한 해석이다. 구술 연구의 미덕은 구술 주체의 자기 해석과 의미화에 주목하여 서발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연구자는 경험적인 구술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비가시적인 폭력구조에 예민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우에노 지즈코는 여성 행위성의 양면성에 주목하며 그 어려움을 “구조와 주체의 애로”로 표현했다. 이에 “구조로도 주체로도 환원되지 않는 에이전시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구조의 폭력에 면죄부를 주지 않는 그러한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⁷²⁾ 이것이 가능하려면 비가시화된 폭력구조와 주체 행위가 충돌하는 접점을 치열하게 사유해야 한다. 여성들의 열망이 비가시적인

69) Seungsook Moon, “(Book Review) *The Comfort Women: Sexual Violence and Postcolonial Memory in Korea and Japan*, Worlds of Desire: The Chicago Series on Sexuality, Gender, and Culture”, *Pacific Affairs*, vol. 84, no. 1, 2011, p.172.

70) Laura Hyun Yi Kang, *Traffic in Asian Women*, pp.45-46.

71) 캐롤라인 노마 지음, 유혜담 옮김, 『위안부’는 여자다: 여성주의 관점으로 ‘위안부’ 역사를 복원하다』, 98-106쪽.

72) 우에노 지즈코, 「전쟁과 성폭력의 비교사의 관점」, 『전쟁과 성폭력의 비교사』, 어문학사, 2020, 42쪽.

거대한 폭력구조와 맞닿아 있었던 현실의 아이러니에 대한 통찰 없이 여성의 행위성만을 떼어내는 것은 탈맥락적이고 탈역사적인 해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또한 소정희가 언급한 식민지 조선의 가부장제 문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위안부제도의 폭력구조에 식민주의와 계급문제뿐 아니라 가부장제가 연루되어 있었음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것이 일본의 폭력성에 대비되는 한국의 폭력성으로 설명될 뿐만 아니라, '강제동원된 성노예'를 부정하는 근거로 쓰인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가부장제는 단순히 한국의 문화적 특질로 환원될 수 없다. 왜냐하면 식민지기 호주를 중심으로 재편된 조선의 가부장제는 천황제 파시즘체제와 분리할 수 없는 식민지적 근대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이다. 식민지 조선에서는 일본 민법을 적용해 결혼한 여성의 법적 행위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기혼여성, 결혼하지 않은 성인자녀, 미성년 자녀는 모두 독자적으로 법률 행위를 하지 못했다. 친권자와 호주가 이들의 노동계약을 맺는 주체였기 때문에 가부장이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여성을 파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특히 전쟁시기에는 군국주의 파시즘체제의 전개에 따라 여성의 몸이 재배치돼 그 수요가 급증하자 가부장이 딸을 파는 행위가 한층 확대되었다. 식민지기 내내 호주와 친권자는 천황제 국가의 하위수행자이자 자본 축적의 협력자 역할을 맡았는데,⁷³⁾ 총동원체제기 그 '진가'가 발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 가부장제는 천황제의 작동 시스템 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소정희의 한국 가부장제 비판을 인용한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한국에서 가부장제 문제를 제기할 때는 이것이 내적 성찰의

73) 일본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아동노동 활용과 친권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西村信雄, 『戦後日本家族法の民主化(下巻)』, 東京: 法律文化社, 1991, 435-448쪽.

계기가 되는 데 반해, 영미학계에서는 (‘문명화’되지 못한) 아시아적 전통이나 특성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아버지가 딸을 학대하거나 파는 것은 가부장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은 ‘조선 전통’ 그 자체나 조선의 문화적 특질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교나 아시아 문화로 보는 시각은 문화적 차이에 기인해 다양한 젠더차별이 나타난다고 보는 본질주의적인 접근이며 오리엔탈리즘적인 사고다. 문화 차이에 대한 본질주의적인 관념은 정치사회적 구조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무력할 수밖에 없다.⁷⁴⁾

마지막으로, 구술 텍스트를 활용하는 연구자의 윤리 문제를 지적할 수 있겠다. 소정희는 무책임하게 생존자의 구술이 변화했다는 사실만 언급하여 생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고 일본 우익에게 무차별적인 공격과 모욕을 당하게 방치했다. 동일한 경험에 대한 구술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구술사 연구자에게는 상식에 가깝다. 이는 단지 기억력의 쇠퇴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기억은 정치사회적 영향 속에서 늘 새롭게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자로서 이를 규명하고 싶었다면 비판의 방향을 피해 생존자가 아니라 ‘전형적인 서사’를 요구하는 사회로 돌렸어야 했다.⁷⁵⁾ 서발틴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청자는 천개의 감각기관을 열어야 한다. 공감 없는 듣기는 타인의 고통을 스펙터클로 소비하는 문제를 반복 재생할 뿐이다.

74) 문화적 차이에 대한 본질주의 비판은 다음을 참고. Elisa Lee, “Behind the Mask of Human Rights: ‘Comfort Women,’ Heteronormativity, & Empires”, p.4.

75) 생존자의 구술 전략에 초점을 둔 연구로 다음을 참고. Karen S. Murph, Negotiating the master narratives of prostitution, slavery, and rape in the testimonies by and representations of Korean sex slaves of the Japanese military (1932–1945),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eorgetown University, 2008.

VI. 일본군‘위안부’ 피해 부정 연구

영어권의 전문 학술연구 가운데 위안부 피해를 부정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위안부 기념비 설치나 배상 이슈에 대해서는 이견이 적지 않으나 일본군위안부제도의 폭력성과 반인권적 성격을 부정하는 글은 찾아보기 어렵다. 1990년대 이후 글로벌 거버넌스와 학계 공론장에서 합의된 지식을 돌이키려면 명백한 반증 사례나 논리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본 신민족주의 세력의 전략적 출판물이나 선전물을 제외하고 학계에서 발표된 역사수정주의 논문이나 저서가 손에 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2014년 역사수정주의 단체(GAHT: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세계연합회)를 설립해 미국지회 의장을 맡았던 고이치 메라(Koich Mera)는 2015년 위안부 피해를 부정하는 저서를 출간했다. 일본이 한국 여성들을 강제로 납치해서 성노예로 만든 증거가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미국에서 위안부 동상을 설치하는 것은 한미일의 우호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⁷⁶⁾

하와이대학교 치즈코 앨런(Chizuko T. Allen)은 대학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발간한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형성: 한국사』의 “신여성과 빈곤 여성” 부분에서 위안부 관련 내용을 서술했다. 동원 과정에서 조선인 업자의 역할, 여성 스스로의 선택, 조선 가부장제와 아버지의 딸 매매 등을 강조했다. 일부 여성은 브로커에게 속거나 납치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조선의 가난한 시골 농촌에서 여성 스스로 자신을 팔거나 아버지의 빚을 선불금으

76) Koich Mera, *Comfort Women Not “Sex Slaves”: Rectifying the Myriad of Perspectives* (Xlibris, 2015).

로 갚는 대가로 2~3년 간 계약을 체결해서 위안부가 되었다고 했다.⁷⁷⁾ 이 영훈의 『반일종족주의』에 대한 서평에서는 더 노골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 영훈의 저서에서 위안부 통설을 거부한 것을 주로 소개하고, 전후 한국에서 위안부는 사라지기는커녕 더 나쁜 조건에서 착취당했다고 비판했다.⁷⁸⁾

위의 저서들은 전문적인 동료 평가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비해 마크 램지어의 ‘태평양전쟁의 성 계약’ 논문은 동료 평가를 거쳐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전문학술지(SSCI급)에 게재되었다는 점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램지어는 위안부제도를 게임이론에 따라 설명했다. 위안소 업주는 여성들에게 나쁜 평판과 전쟁의 위험을 상쇄할 만큼 인센티브를 지불해야 했고 여성들은 그 대가로 많은 돈과 짧은 체류기간을 요구했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램지어는 위안부제도의 폭력성에는 눈을 감은 채 이를 합리적인 상호 계약관계로만 설명했다.⁷⁹⁾ 이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반박 기고문과 논문이 발표된 바 있다.⁸⁰⁾

일본 신민족주의나 역사수정주의를 우려하는 연구도 지속적으로 발표되

77) Chizuko T. Allen, *History of Asia Series: The Making of Korea in East Asia: a Korean History* (CA: Cognella Academic Publishing, 2021), pp.104–105.

78) Chizuko T. Allen, “Book Review: ‘Anti-Japan Tribalism: The Root of the Japan-Korea Crisis’ by Lee Young-hoon and others”, *Japan Forward*, March 2, 2020.

79) J. Mark Ramseyer, “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

80) Amy Stanley, Hannah Shepherd, Sayaka Chatani, David Ambaras and Chelsea Szendi Schieder, “‘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 The Case for Retraction on Grounds of Academic Misconduct”,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vol. 19, iss. 5, no. 12, 2021; Tessa Morris-Suzuki, “The ‘Comfort Women’ Issue, Freedom of Speech, and Academic Integrity: A Study Aid”,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vol. 19, iss. 5, no. 12, 2021.

고 있다.⁸¹⁾ 앞으로 램지어와 같은 연구가 더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지만 기존 학계의 정설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각국에서 위안부 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로만 치부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과 연동돼 있다. 특히 여성과 소수자 혐오, 유색인종 혐오, 여성 인신매매 등은 전 세계에서 격화되고 있는 첨예한 이슈다. 연구 진실성과 학문적 진리를 표방하는 학문 공론장에서 소수자 차별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연구를 용인하는 풍토는 상상하기 어렵다.

맺음말

1990년대에 들어 일본군위안부는 국제사회에서 대표적인 여성폭력 사례로 여성인권 문제의 상징이 되었다. 탈냉전이라는 정치변화와 타자에 주목하는 학계의 담론변화로 위안부 역사는 초국적 지식장으로 이동했다. 다양한 국적의 학자들이 학제적 교류를 통해 생산한 위안부 지식은 어떤 특정 국가나 집단에 특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일본군위안부가 초국적 기억이자 공적 역사로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위안부 역사상이 고정되지 않고 세계 각지의 젠더·인종·계급 문제와 결합해 재탄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역사가 로컬 역사와 만나고 과거 기억이 미래 기

81) Rumiko Nishino, Puja Kim, and Akane Onozawa, *Denying the Comfort Women: The Japanese State's Assault on Historical Truth* (New York: Routledge, 2018); Yuki Tanaka, "'Comfort Women Bashing' and Japan's Social Formation of Hegemonic Masculinity", in *'History Wars' and Reconciliation in Japan and Korea: The Roles of Historians, Artists and Activists*, ed., Michael Lewi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7); Yonson Ahn, "Japan's 'Comfort Women' and Historical Memory: The Neo-nationalist Counter-attack", in *The Power of Memory in Modern Japan*, eds., Sven Saaler, Wolfgang Schwentker (Kent: Global Oriental, 2008).

억과 얽혀 끊임없이 새로운 차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상호소통 과정은 ‘다방향적 기억’ 환경을 만들고 기억의 탈중심화를 강화한다.⁸²⁾ 이것이 한국 학계에 제기하는 과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앞으로 논의 진전을 위해 연구 내용을 토대로 몇 가지 논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권의 위안부 연구자 가운데 동아시아학-일본학 전공자의 비중이 높아 한국계 외에 한국 자료와 연구 성과를 참고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영어와 일본어 자료를 참고한 연구가 대부분인데, 이는 지식생산의 편향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 또는 동아시아의 지식이 일본을 경유해 영어권에 소개되고 그것이 인용을 통해 재생산되는 현실은 지식생산 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위안부제도의 식민주의적 성격을 비판하는 목소리가⁸³⁾ 민족주의 색채가 강한 한국적 특성쯤으로 받아들여지는 문제는 적지 않은 고민거리를 안긴다. 하지만 이를 민족주의적 헤게모니 싸움으로 이해해서도 안 된다. 이것은 제국주의 경험을 가진 나라들의 자기성찰과 관련된 논의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소수 역사수정주의 출판물을 제외하면, 위안부 제도의 성격을 둘러싼 논의지형에서 ‘강제 vs. 자발’, ‘성노예 vs. 매춘부’의 구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일 양국의 대표적인 민족주의 논쟁을 되풀이할 이유가 없고, 무엇보다 초국적 지식장에서 성노예론은 이미 합의된 지식에 가깝기 때문이다. 다만, 강제노동이나 강제매춘을 성노예와 대립적으로 보지 않는 연구도 많다는 사실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역사수정주의의 부정론을 의식

82) 다방향적 기억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Jie-Hyun Lim, “The Second World War in global memory space”, pp.722-724.

83) 이에 관한 비판적 문제제기로 다음을 참고. 정진성, 「전시 하 여성침해의 보편성과 역사적 특수성: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한국여성학』 제19권 2호, 2003.

하며 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연구를 생산해왔던 기존 관행을 돌아보게 한다. 무엇이 여성에 대한 폭력인지에 기초해 위안부 피해를 협소하게 이해하는 방식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셋째, 많은 연구에서는 전후 여성들을 침묵하게 만들었던 이유로 한국의 가부장제를 지목했다. 일부는 이를 문화적 차이로 환원하는 서술 태도를 보였다. 물론 위안부제도의 구조적 폭력성과 가부장제를 분리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이것이 한국에서 제기될 때는 내적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는 데 반해, 영어권에서는 아시아적 특성이나 한국의 유교 전통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이런 본질주의적 접근은 오리엔탈리즘과 인종주의를 재생산한다. 네덜란드계 호주인 얀 루프 오헤른(Jan Ruff O'Herne)이 한국 생존자들을 보고 증언을 결심했다는 사실은 이것이 단지 한국의 가부장제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문제는 그 피해를 말하고 들을 수 있는 언어와 인식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90년대 이전까지 피해자는 그저 “불운한 낙오자”나⁸⁴⁾ 성애화된 재현물로⁸⁵⁾ 소비되었을 뿐이다. 여성들의 침묵은 전후 냉전체제, 미군 기지촌과 군사화, 가부장제적 성문화와 성 착취제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

넷째, 영어권 학계에서는 구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의 사례에 견줘 여성에 대한 폭력(VAW)과 전시 성폭력의 관점에서 일본군위안부 역사를 이해하고 있다. 2차 대전 시기 연합군의 성폭력, 전후 동아시아 주둔 미군의 성 착취 등을 같은 맥락에서 검토한다. 이것은 무엇이 여성에 대한 폭력인지,

84) Laura Hein, “Savage Irony: The Imaginative Power of the ‘Military Comfort Women’ in the 1990s”, *Gender and History*, vol. 11, no. 2, 1999, p.343.

85) 김청강, 「위안부’는 어떻게 잊혀졌나? 1990년대 이전 대중영화 속 ‘위안부’ 재현」, 『동아시아문화연구』 제71집, 2017.

무엇이 여성을 예측하고 노예화하는지에 대해 좀 더 폭넓고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다른 각도에서 그동안 당연시되었던 패러다임을 의문시하고 재논의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위안부 경험을 초국적 역사의 반열에 올려놓고 그것을 여성인권이라는 이상적인 렌즈로 보는 것 역시 토론이 필요한 주제이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초국적 이상이 강조되는 가운데 로컬리티를 삭제하고 소수자를 주변화하는 것은 가장 우려되는 문제다. 서구 ‘제1세계’ 중심의 인권 패러다임이 위안부 역사를 보편화하여 초국적 기억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것이 ‘아시아’ ‘여성’의 타자화로 기능하는 현실을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서구적 보편성, 이성애적 정상규범, 국민국가시스템에 기초해 형성된 인권 담론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극복하는 작업은 일본군위안부를 둘러싼 초국적 지식장의 향후 과제가 될 것이다.

(논문투고일: 2021.9.22. 심사완료일: 2021.9.26. 게재확정일: 2021.9.30.)

참고문헌

〈자료〉

- Radhika Coomaraswamy, Report on the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on the Issue of Military Sexual Slavery in Wartime (E/CN.4/1996/53/Add.1)(New York: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1996)
- Gay J. McDougall,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 Systematic Rape, Sexual Slavery and Slavery-Like Practices during Armed Conflict (E/CN.4/Sub.2/1998/13)(New York: United Nations, 1998)

〈연구서〉

- 임지현, 『희생자의식 민족주의: 고통을 경쟁하는 지구적 기억 전쟁』, 후마니타스, 2021
- 정용욱 외, 『언론의 역사분쟁 보도와 동아시아 평화: 최근 미국과 일본 언론의 '위안부' 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6
- 피에르 노라 외 지음, 김인중·유희수·문지영·양희영 옮김, 『기억의 장소 1: 공화국』, 나남, 2010
- Alexis Dudden, *Troubled Apologies: Among Japa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8)
- Caroline Norma, *The Japanese Comfort Women and Sexual Slavery During the China and Pacific Wars* (London, New York: Bloomsbury Publishing, 2016)(캐롤라인 노마 지음, 유혜담 옮김, 『'위안부'는 여자다: 여성주의 관점으로 '위안부' 역사를 복원하다』, 열다, 2020)
- Catherine Lu, *Justice and Reconciliation in World Politics*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 Chizuko T. Allen, *History of Asia Series: The Making of Korea in East Asia: a Korean History* (CA: Cognella Academic Publishing, 2021)
- Chunghhee Sarah Soh, *The Comfort Women: Sexual Violence and Postcolonial Memory in Korea and Japan* (Chicago, London: The University of

- Chicago Press, 2008)
- David Andrew Schmidt, *Ianfu – The Comfort Women of the Japanese Imperial Army of the Pacific War: Broken Silence* (New York: The Edwin Mellen Press, 2000)
- George Hicks, *The Comfort Women: Sex Slaves of the Japanese Imperial Forces* (NSW: Allen & Unwin Pty Ltd, 1995); *The Comfort Women: Japan's Brutal Regime of Enforced Prostitution in the Second World War* (New York: W. W. Norton, 1995)(조지 히스 지음, 전경자·성은애 옮김, 『위안부: 일본군대의 성노예로 끌려간 여성들』(창작과비평사, 1995)
- Jennifer Lind, *Sorry States: Apologies in International Politic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8)
- Koich Mera, *Comfort Women Not “Sex Slaves”: Rectifying the Myriad of Perspectives* (Xlibris, 2015)
- Lisa Yoneyama, *Cold War Ruins: Transpacific Critique of American Justice and Japanese War Crime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6)
- Laura Hyun Yi Kang, *Traffic in Asian Women* (Durham,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20)
- Rumiko Nishino, Puja Kim, and Akane Onozawa, *Denying the Comfort Women: The Japanese State's Assault on Historical Truth* (New York: Routledge, 2018)
- Stephanie A. Limoncelli, *The Politics of Trafficking The First International Movement to Combat the Sexual Exploitation of Women*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0)
- Tessa Morris-Suzuki, Morris Low, Leonid Petrov and Timothy Y. Tsu, *East Asia Beyond the History Wars: Confronting the ghosts of violence* (London, New York: Routledge, 2013)
- The Research Team of the War and Women's Human Rights Center, ed., *Stories that Make History: The Experience and Memories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Girls—Women*, trans., Angella Son (Berlin, Boston: Walter De Gruyter GmbH & Co KG., 2020)
- Thomas J. Ward, William D. Lay, *Park Statue Politics: World War II, Comfort Women Memorials in the United States* (Bristol: E-International

Relations Publishing, 2019)

Yonson Ahn, *Whose Comfort?: Body, Sexuality And Identities Of Korean 'Comfort Women' and Japanese Soldiers During World War II* (New Jersey, London, Singapore: World Scientific Publishing, 2019)

Yuki Tanaka, *Japan's Comfort Women: Sexual slavery and prostitution during World War II and the US occupation*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2)

西村信雄, 『戦後日本家族法の民主化(下巻)』, 東京: 法律文化社, 1991

〈연구논문〉

김경만, 「우리는 왜 글로벌 지식장으로 가야 하나?: 『글로벌 지식장과 상징폭력』에 대한 정수복의 비판에 대하여」, 『경제와 사회』 제109호, 2016

김청강, 「'위안부'는 어떻게 잊혀졌나? 1990년대 이전 대중영화 속 '위안부' 재현」, 『동아시아문화연구』 제71집, 2017

박준병, 「잊혀 가는 이야기: 필리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 『전쟁과 여성 인권: 세계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인식』, 심산, 2021

소정희, 「교육받고 자립된 자아실현을 열망했던만: 조선인 '위안부'와 정신대에 관한 '개인 중심'의 비판인류학적 고찰」,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1』, 책세상, 2006

우에노 지즈코, 「전쟁과 성폭력의 비교사의 관점」, 『전쟁과 성폭력의 비교사』, 어문학사, 2020

정수복, 「김경만의 '지적 도발'에 대한 정수복의 '응답」, 『경제와 사회』 제108호, 2015

정진성, 「전시 하 여성침해의 보편성과 역사적 특수성: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인식」, 『한국여성학』 제19권 2호, 2003

Alice Yun Chai, "Asian-Pacific Feminist Coalition Politics: The Chŏngshindae/Jūgunianfu(Comfort Women) Movement", *Korean Studies*, vol. 17, 1993

Angella Son, "Inadequate Innocence of Korean Comfort Girls-Women: Obliterated Dignity and Shamed Self", *Pastoral Psychology*, vol. 67, no. 2, 2018

Bonnie B. C. Oh, "The Japanese Imperial System and the Korean "Comfort Women" of World War II", in *Legacies of the Comfort Women of World*

- War II*, eds., Margaret D. Stetz, Bonnie B. C. Oh (New York, London: M. E. Sharpe, 2001)
- Carmen M. Argibay, "Sexual Slavery and the 'Comfort Women' of World War II", *Berkele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1, 2003
- Carol Gluck, "Operations of Memory: 'Comfort Women' and the World", in *Ruptured Histories: War, Memory, and the Post-Cold War in Asia*, eds., Sheila Miyoshi Jager, Rana Mitter (Cambridge, Massachusetts,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 _____, "What the World Owes the Comfort Women", in *Mnemonic Solidarity: Global Interventions*, eds., Jie-Hyun Lim, Eve Rosenhaft (London: Palgrave Mcmillan, 2021)
- Caroline Norma, "The First #METOO Activists: Contemporary Campaigning in Support of the Former Military 'Comfort Women'", *Cross Currents*, vol. 69, no. 4, 2019
- Chanhaeng Lee, "Can the Comfort Women Speak?: Mainstream US Media Representations of the Japanese Military Sex Slaves", *Korea Journal*, vol. 61, no. 1, 2021
- Chih-Chieh Chou, "An Emerging Transnational Movement in Women's Human Rights: Campaign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on 'Comfort Women' Issue in East Asia", *Journal of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vol. 4, no. 2, 2003
- Chin Sung Chung, "The Orgin and Development of the Military Sexual Slavery Problem in Imperial Japan", *Positions: East Asian Cultural Critique*, vol. 5 no. 1, 1997
- Chunghhee Sarah Soh, "Prostitute versus Sex Slaves: The Politics of Representing the 'Comfort Women'", in *Legacies of the Comfort Women of World War II*, eds., Margaret D. Stetz, Bonnie B. C. Oh (New York, London: M. E. Sharpe, 2001)
- _____, "Japan's National/Asian Women's Fund for Comfort Women", *Pacific Affairs*, vol. 76, no. 2, 2003
- Chungmoo Choi, "Guest Editor's Introduction: The Comfort Women: Colonialism, War, and Sex", *Positions: East Asian Cultural Critique*, vol. 5 no. 1, 1997

- David Shim, “Memorials’ politics: Exploring the material rhetoric of the Statue of Peace”, *Memory Studies*, June 22, 2021
- Elisa Lee, “Behind the Mask of Human Rights: “Comfort Women,” Heteronormativity, & Empires”, *Tapestries: Interwoven voices of local and global identities*, vol. 4, no. 1, 2015
- George Hicks, “The Comfort Women Redress Movement”, in *When Sorry Isn’t Enough: The Controversy over Apologies and Reparations for Human Injustice*, ed., Roy L. Brook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9)
- Heisoo Shin, “Voices of the “Comfort Women”: The Power Politics Surrounding the UNESCO Documentary Heritage”,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vol. 19, iss. 5, no. 8, 2021
- Hiro Saito, “The Cultural Pragmatics of Political Apology”, *Cultural Sociology*, vol. 10, no. 4, 2016
- Hyunah Yang, “Revisiting the Issue of Korean ‘Military Comfort Women’: The Question of Truth and Positionality”, *Positions: East Asian Cultural Critique*, vol. 5, no. 1, 1997
- J. Mark Ramseyer, “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vol. 65, 2021
- Jie-Hyun Lim, “The Second World War in global memory space”, in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Second World War Volume III, Total War: Economy, Society, and Culture*, eds., Michael Geyer, Adam Tooz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 John Lie, “The State as Pimp: Prostitution and the Patriarchal State in Japan in the 1940s”, *The Sociological Quarterly*, vol. 38, no. 2, 1997
- Jung-ae Park, “The Concept and the Category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Through Looking at Their Damage Condition”, *The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vol. 17, no. 2, 2021
- Karen S. Murph, Negotiating the master narratives of prostitution, slavery, and rape in the testimonies by and representations of Korean sex slaves of the Japanese military (1932–1945),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eorgetown University, 2008
- Kazuko Watanabe, “Trafficking in Women’s Bodies, Then and Now: The Issue

- of Military ‘Comfort Women’”, *Peace & Change*, vol. 20, no. 4, 1995
- Kelly D. Askin, “Comfort women – Shifting shame and stigma from victims to victimizers”, *International Criminal Law Review*, vol. 1, 2001
- Laura Hein, “Savage Irony: The Imaginative Power of the ‘Military Comfort Women’ in the 1990s”, *Gender and History*, vol. 11, no. 2, 1999
- Linda Hasunuma, Mary M. McCarthy, “Creating a Collective Memory of the Comfort Women in the USA”,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tics, Culture, and Society*, vol. 32, no. 2, 2019
- Margaret D. Stetz, “Wartime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A Feminist Response”, in *Legacies of the Comfort Women of World War II*, eds., Margaret D. Stetz, Bonnie B. C. Oh (New York, London: M. E. Sharpe, 2001)
- _____, “Teaching ‘Comfort Women’ Issues in Women’s Studies Courses”, *Radical Teacher*, no. 66, Spring 2003
- _____, “Representing ‘Comfort Women’: Activism through Law and Art”, in *Transformations: Feminist Pathways to Global Change*, eds., Torry D. Dickinson, Robert K. Schaeffer (New York: Routledge, 2008)
- _____, “Making Girl Victims Visible: A Survey of Representations That Have Circulated in the West”, in *The Transnational Redress Movement for the Victim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eds., Pyong Gap Min, Thomas R. Chung and Sejung Sage Yim (Berlin, Boston: Walter De Gruyter GmbH & Co KG., 2020)
- María del Pilar Álvarez, “Nationalizing Transnationalism: A Comparative Study of the ‘Comfort Women’ Social Movement in China, Taiwan, and South Korea”, *Journal of Contemporary Eastern Asia*, vol. 19, no. 1, 2020
- Mark R. Frost, Edward Vickers, “Introduction: The “Comfort Women” as Public History: Scholarship, Advocacy and the Commemorative Impulse”,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vol. 19, iss. 5, no. 3, 2021
- Nicola Henry, “Theorizing Wartime Rape: Deconstructing Gender, Sexuality, and Violence”, *Gender & Society*, vol. 30, no.1, 2016
- Norma Field, “War and Apology: Japan, Asia, the Fiftieth, and After”, *Positions: East Asian Cultural Critique*, vol. 5 no. 1, 1997

- Pyong Gap Min, “Korean ‘Comfort Women’: The Intersection of Colonial Power, Gender, and Class”, *Gender&Society*, vol. 17 no. 6, 2003
- Seiya Morita, Caroline Norma, “Sexual Violence in Wartime and Peacetime: Violence Against Women in the 20st Century”,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vol. 19, iss. 5, no. 9, 2021
- Tessa Morris-Suzuki, “You Don’t Want to Know About the Girls? The ‘Comfort women,’ the Japanese Military and Allied Forces in the Asia-Pacific War”,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vol. 13, iss. 31, no. 1, 2015
- _____, “The ‘Comfort Women’ Issue, Freedom of Speech, and Academic Integrity: A Study Aid”,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vol. 19, iss. 5, no. 12, 2021
- Thomas J. Ward, William D. Lay, “The Comfort Women Controversy: Not Over Yet”, *East Asia*, vol. 33, no. 4, 2016
- Ustinia Dolgopol, “Women’s voices, women’s pain”, *Human Rights Quarterly*, vol. 17, no. 1, 1995
- Woonok Yeom, “Going Selective? British Media’s Coverage of the Comfort Women”, *Korea Journal*, vol. 61, no. 1, 2021
- Yonson Ahn, “Japan’s ‘Comfort Women’ and Historical Memory: The Neo-nationalist Counter-attack”, in *The Power of Memory in Modern Japan*, eds., Sven Saaler, Wolfgang Schwentker (Kent: Global Oriental, 2008)
- _____, “Yearning for affection: Traumatic bonding between Korean ‘comfort women’ and Japanese soldiers during World War II”, *European Journal of Women’s Studies*, vol. 26, no. 4, 2019
- Yuki Tanaka, “‘Comfort Women Bashing’ and Japan’s Social Formation of Hegemonic Masculinity”, in *‘History Wars’ and Reconciliation in Japan and Korea: The Roles of Historians, Artists and Activists*, ed., Michael Lewi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7)

〈기타〉

미키 데자키 감독, 〈주전장〉(2019)

[ABSTRACT]

Transnational Knowledge Field as Sites of Memory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 Focusing on the Study of “Comfort Women” in the English-Speaking Regions

Eunkyung Kim

This paper reviews the trends and issues of transnational knowledge field as sites of memory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for the first time among related studies. Based on the achievements of various academic disciplines presented in English-speaking regions, this paper aims to start a new discussion by breaking away from the awareness of “comfort women” that have been a symbol of colonial damage.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tudies on comfort women in English-speaking regions mostly use English and Japanese languages as references. This phenomenon can lead to biased production of knowledge. Knowledge of Korea or East Asia is introduced to English-speaking regions via Japan, and the reality in which such knowledge is reproduced through citations needs to be discussed more in-depth regarding the imbalance of the knowledge production structure. Second, except for a small number of publications on historical revisionism, there are very few the composition of ‘forced vs. voluntary’ and ‘sex slave vs. prostitute’ in the transnational knowledge field. Despite widely accepted concept of sex slaves, a number of studies do not separate from sex slaves and forced labor, forced

prostitution. Third, some studies point out the patriarchal system of Korea as the reason that made women silent after the war, reducing it down to cultural differences. It is understood as an Asian characteristic or Confucian tradition of Korea in English-speaking regions. This essentialistic approach reproduces orientalism and racism. Fourth,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re understood to be violence against women and human rights issues of women in transnational knowledge field. The human rights paradigm centered around the Western ‘first world’ contributed to generalize the history of “comfort women” into a transnational memory, but it is necessary to look back on the reality in which this memory otherizes ‘women’ of ‘Asia’ on the one hand.

Key words :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transnational memory, transnational knowledge field, sexual slavery, violence of women, women’s rights as human rights